

## 지역 노동계 전면 보이콧...광주형일자리 또 다시 위기

민주노동총이 이어 한국노동총도 “광주시가 노사상생 정신 부정”  
기공식 앞두고 갈등 표면화...“광주시-노동계 점점 찾아야”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토대가 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 기공식을 앞두고, 사업의 한 축을 맡아온 한국노동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노동계가 사업에 더는 참여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주형일자리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며 반대 움직임을 보여온 민주노동총과 달리, 한국노동총은 ‘노사가 함께 희생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힘을 보태겠다’며 지난 1년간 사업의 한 축을 자임해왔다. 하지

만 26일 완성차공장 기공식을 앞에 두고 “지난 1년간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사실상 현대차 광주 소형공장 건립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상생 정신이 부정되고 있다. 더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보이콧 결정을 내린 것이다.

16일 광주시와 지역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 사업 기공식을 비롯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17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일자

리위원회 참여 속에 진행 중인 ‘2019 상생형 지역일자리 워크숍’ 불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노동계의 광주형일자리 보이콧 결정에는 노동계의 요구에 광주시와 사측이 미동조차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는 지난 9월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광주시 측에 ▲완성차공장 건립 과정을 감시할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임원진 급여, 노동자 평균 급여 2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출신 박광식 이사 경질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애초 약속과 달리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사업 정신인 ‘노사상생’ 정신을 부정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노동계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쟁력은 시민 세금 등 5000억원을 투입해 건립되는 완성차 공장이 잘 지어지느냐에 달렸으며 전문가, 시민사회, 협력업체가 참여한 시민자문위 구성·운영이 필요하고, 대관(정부·의회업 무 대응)업무 전문으로 차(車)산업 문의 한이자 노동친화적 인물로 분류되지 않은 현대차 부사장 출신 이사는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당시 노동계는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물론 광주글로벌모터스 모두 이날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자 전격적으로 사업 보이콧 결정을 내렸다는 게 한국노동총 등 지역 노동계 설명이다.

윤종태 한국노동총 광주본부 의장은 “(민

주노동총과 달리) 당초 저희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노사가 함께 희생한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또한 초대 대표이사에게 박광식 전 광주시장이 선임된 것을 두고도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반대여론이 일어났을 때, 박 전 시장 정도면 현대차를 구슬리고, 광주시를 설득해 노사상생 일자리로 이끌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이 완전히 부서졌다. 왜 노동계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다소 안일한 모습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계와 접점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글로벌모터스 측은 “18일 주주총회가 예정됐지만

(민감한) 임원 보수 책정은 차기로 미루기로 했다”며 노동계 설득을 위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 사업에 관여 하는 핵심 관계자는 “광주형일자리에는 협력적 노사 상생 모델 구축과 갈등의 예방, 조정을 바탕으로 탄생한 일자리다. 이른 시일 안에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 향후 임금체계 조정, 갈등 조정 등이 원만치 않아 기존 대기업 공장처럼 노사 분규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도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노선 내년 하반기 점핑·3Door 시내버스 운행

광주시 준공영제 개선안 확정  
버스업체 재정 등 시흥피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출퇴근시간 광주 시내버스 혼잡노선 일부구간에 ‘점핑버스’와 ‘3Door’ 시내버스가 도입된다. 탑승객이 몰리는 특정 구간만을 운행하는 점핑버스, 승하차 문이 3개 달리고 이른바 ‘3Door’ 저상버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기존 시내버스보다 탑승인원이 20~30명 늘어난 최대 90명 탑승 가능하다.

운송업체 경영정보도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오는 2021년 시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운송업체 외부 회계감사 결과, 재무상태 등을 광주시정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준공영제 혁신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매년 시민 세금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하지만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고,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혼잡노선 출퇴근전용 버스 도입 및 준공영제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이다. 출퇴근전용 버스가 도입되는 노선은 2018년 기준 1일 대당 500명 이상 이용하는 시내버스 8개 노선이다. 진월 07번, 운림 54번, 매일 26번, 점단 09번, 일곡 28번, 수완 03번, 문흥 18번, 매일 06번

이다. 출퇴근시간 승객이 몰려 탑승하지 못하는 시민이 적지 않아 불편 민원이 집중된 구간이다.

이들 8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운송사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탑승객이 몰리는 구간에만 운행하는 점핑버스가 운행된다. 승하차 문이 3개 달린 이른바 ‘3Door’ 저상버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기존 시내버스보다 탑승인원이 20~30명 늘어난 최대 90명 탑승 가능하다.

운송업체 경영정보도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오는 2021년 시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운송업체 외부 회계감사 결과, 재무상태, 손익현황, 임직원 규모, 임직원 평균 급여, 운송원가, 운송수입, 재정지원금 정산 및 평가 결과 등이 공개된다.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당시 운영 근거가 된 이해당사자간 협약서(광주시, 운송사)도 개정하고,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도 제정한다. 중대 과실 발생 시 운송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광주시 주관의 정기적 감사 시행 등을 담는다. 준공영제 관련 위원회에 시민 참여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재정지원금도 매년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혁신 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종부세 올리고 15억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文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문재인 정부가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금융·세제·약학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관련기사 15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금융감독 규정·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최대한 신속

히 처리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드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